

1.글로벌 채권

* <뉴욕 채권> '콜럼버스의 날' 휴장

[미국]

2y 0.83% (휴장)

10y 1.72% (휴장)

30y 2.45% (휴장)

[기타 10Y물]

영국 1.02% (+5.2bp)

독일 0.05% (+3.7bp)

프랑스 0.34% (+3.3bp)

이탈리아 1.39% (+1.2bp)

스페인 1.02% (+1.1bp)

그리스 8.11% (-3.2bp)

2.글로벌 증시

* <뉴욕 마감> 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주 강세로 상승

* 대선 TV토론 결과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이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보다 우세했다는 평가 속에 유가가 급등세를 보이며 주가를 끌어올림

* 국제유가, 러시아 감산 동참 가능성에 3%대 급등...지난해 7월 이후 최고치

-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스탄불에서 열린 세계에너지총회 연설에서 "러시아는 생산량을 제한하는 공동 조처에 동참할 준비가 돼 있다"며 다른 산유국들 또한 이에 동참할 것을 호소

-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장관도 단기적으로 \$60까지 가격 상승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해 유가 상승에 일조

* <유럽 마감>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주의 랠리에 힘입어 장 초반 하락세에서 반등

* <상하이 마감> 부동산 규제 반사이익 기대감에 급등

- 중국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과 국경절 연휴 기간 홍콩 증시의 상승 등이 호재로 작용

9월 말부터 국경절 연휴 기간까지 20개가 넘는 중국 지방 정부들이 앞다퉀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렸던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 일으킴

* <도쿄 마감> '체육의 날' 휴장

| | | |
|-----------|----------|----------|
| DOW30 | 18329.04 | (+0.49%) |
| NASDAQ | 5328.67 | (+0.69%) |
| S&P500 | 2163.66 | (+0.46%) |
| NIKKEI225 | 16860.09 | (휴장) |
| SHANGHAI | 3048.14 | (+1.45%) |
| FTSE100 | 7097.50 | (+0.75%) |
| DAX30 | 10624.08 | (+1.27%) |
| CAC40 | 4497.26 | (+1.06%) |

3.글로벌 환시

* 달러화, Fed의 12월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 이어져 주요 통화에 상승

| | | |
|--------|-------------------------------|------------|
| 유로/달러 | 1.1136 | (-0.0062) |
| 유로/엔 | 115.36 | (+0.08) |
| 달러/엔 | 103.59 | (+0.70) |
| 달러/위안 | 6.7008 | (+0.0230) |
| 파운드/달러 | 1.23593 | (-0.00708) |
| NDF | 1108.70 / 1109.50원...0.45원 상승 | |

4.글로벌 상품

* <국제 유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OPEC 산유량 제한에 동참 소식에 반등

* <국제 금값> 유가 강세에 따른 여타 원자재에 대한 동반 매입세가 유입된 데다 단기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가세해 상승

| | | |
|--------|---------|---------|
| WTI | 51.35 | (+3.1%) |
| COMEX금 | 1260.40 | (+0.7%) |

5. 전일 국내 지표

| | | |
|------|---------|----------|
| 코스피 | 2056.82 | (+0.15%) |
| 코스닥 | 674.74 | (-0.17%) |
| 원/달러 | 1108.40 | (-7.10) |
| KTB | 110.64 | (-0.08) |
| LKTB | 131.60 | (-0.35) |

6. 전일 국내 주요 금리

- * 국고채 금리가 장 초반 하락세를 지키지 못하고 상승세로 마감. 국채선물은 일중 저점으로 마감.
- 이번주 금통위 앞둔 부담 작용.
- 국고채 50년물 매출을 앞두고 10년 국채선물 등 장기물 변동성 뚜렷
- 국고 5년 1.183조 1.340% (-0.3bp) 낙찰...응찰 4.578조

| | | |
|-----|---------|-----------|
| 1y | 1.3440% | (+0.80bp) |
| 3y | 1.3350% | (+0.90bp) |
| 5y | 1.3780% | (+3.50bp) |
| 10y | 1.5460% | (+1.50bp) |
| 20y | 1.5790% | (+0.60bp) |
| 30y | 1.5820% | (+0.60bp) |
| CD | 1.3400% | (0.00bp) |

7. 본드 스왑 스프레드

| | | |
|-----|----------|-----------|
| 1Y | -3.55bp | (+0.10bp) |
| 2Y | -3.60bp | (+0.85bp) |
| 3Y | -2.25bp | (+1.10bp) |
| 5Y | -3.55bp | (-0.75bp) |
| 10Y | -11.60bp | (+1.50bp) |

8. IRS/CRS 동향

- * IRS, 국채선물 약세로 상승 마감. 지난주 대비 다소 조용한 시장 분위기.
- * CRS, 소폭 하락. 거래도 많지 않았고, 변동 폭도 작은 모습.

*IRS 금리

| | | |
|-----|---------|-----------|
| 1Y | 1.3175% | (+1.00bp) |
| 2Y | 1.3050% | (+1.25bp) |
| 3Y | 1.3125% | (+2.00bp) |
| 5Y | 1.3425% | (+2.75bp) |
| 7Y | 1.3675% | (+2.75bp) |
| 10Y | 1.4300% | (+3.00bp) |

| | | |
|-------|-------|-----------|
| 1*2Y | -1.25 | (+0.25bp) |
| 2*3Y | 0.75 | (+0.75bp) |
| 2*5Y | 3.75 | (+1.50bp) |
| 3*5Y | 3.00 | (+0.75bp) |
| 5*7Y | 2.50 | (-0.00bp) |
| 5*10Y | 8.75 | (+0.25bp) |

*CRS 금리

| | | |
|-----|---------|-----------|
| 1Y | 1.1600% | (-1.00bp) |
| 2Y | 1.0100% | (-1.00bp) |
| 3Y | 0.9650% | (-1.00bp) |
| 5Y | 0.9050% | (-0.50bp) |
| 7Y | 0.8300% | (-1.00bp) |
| 10Y | 0.8100% | (0.00bp) |

9. 주요뉴스

[해외]

* 시카고 연은 총재, 12월, 금리인상에 적절한 시기일 수 있지만 금리인상이 시급하다고 보진 않는다며 애매한 입장 밝혀

- 美 9월 고용지표 긍정적이지만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 수준인 2%를 지속적으로 밑돌고 있다고 지적

- '위험 관리 측면에서 완전 고용과 동시에 인플레이션 목표도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

* BOJ 구로다 '물가상승률 2% 달성시기, 2018년으로 늦춰질수도 있다'

- '물가 전망 검토하기 전에 모든 필요한 통계를 면밀히 살펴봐야 하며 물가 목표 달성 시기를 바꿀 수도 있고 바꾸지 않을 수도 있다'

- 국제 수익률 관리 정책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도 간혹 있을 것...필요하다면 단기와 장기 금리 모두를 낮출 수 있다

* 오는 11일 열리는 FRB의 재할인율 결정 회의가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 중요한 고비가 될 것 <닛케이>

- 재할인율, 연준이 상업은행 및 다른 예금취급기관에 단기자금을 빌려줄 때 적용되는 금리로 정책적으로 무게를 가진 금리는 아니지만 연방기금 금리 변경을 전후로 재할인율도 변경된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 함

- 12곳의 연은 가운데 이미 8곳 재할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사회는 재할인율을 1%로 유지

- 재할인율 인상 요청을 하지 않은 '뉴욕 연은'이 재할인율 인상을 요청하면 연준의 통화정책 논의가

단박에 금리 인상으로 기울 것이라 분석

* 中 위안화 가치 6년만에 최저 고시 (6.7008위안)...전 거래일 고시환율보다 달러 대비 위안 가치 0.34% 하락

- 위안화 기준환율 고시는 국경절 연휴로 인해 9일 만에 이뤄졌으며 10월 1일 위안화가 IMF의 SDR에 편입된 이후 처음

- 이날 절하 고시에는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달러화 가치가 급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

* 독일 8월 무역흑자, 전망치(20.0B) 웃도는 22.2B 발표

- 7월에 부진했던 수출이 되살아나면서 8월에 무역수지 흑자가 예상치를 웃돌아

[국내]

* 기재부, 국고채 50년물 발행금리 1.574%...1조1천억원 규모

* 송언석 차관 "50년물 연내 추가발행 없다...내년엔 고려"

* 임종룡 "가계대출 급증 금융회사 금감원 특별점검"

* 통안1년물 1.37%에 1.1조 낙찰...응찰 1.72조

* 은행研·여신금협회 내년 성과연봉제 도입한다

금일 예정 지표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은 총재 연설]

[유럽연합(EU) 재무장관 회의]

일본-8월 경상수지 (예상:1.539T, 이전:1.938T)

독일-10월 ZEW 경기기대지수 (예상:4.0, 이전:0.5)

유로존-ZEW 경기기대지수 (예상:6.3, 이전:5.4)

미국-9월 NFIB 소기업낙관지수 (예상:95.2, 이전:94.4)